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문 앙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총연합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두번째로 치른 전국찬양대지도자강습회 마쳐

맑고 투명한 영혼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시 150:6). 그리스도인 중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다만 몸이 따라 주지 않고 타고난 목소리와 음감 등이 떨어지는 이유로 인해 한탄하면서 ‘들음으로 찬양한다’ 자리에 앉게 될 뿐이다. 따라서 찬양대원으로 서지 못하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맑고 깨끗한 영혼의 소리가 울려나갈 때’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 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담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은 실제로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원들에게 더욱 절실하다. 늘 부르면서도 좀더 잘 하지 못하는 마음에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특히나, 조금만 더 배울 수 있다면 나아질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서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치 메시야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답답해 하던 중, 필립을 만나 온 몸과 혼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한 이디오피아 내지와 같이, 찬양대원들에게도 이러한 시원케 해주는 ‘해석자’들이

이 절실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은 편이다. 찬양사역 전문인들이 즐비하고 각 찬양 연합 과정에서 의식 무의식 중에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원케 해주는 지도자가 절실한 이들은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중소 교회들이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전국 찬양대지도자강습회의 주요 목적과 의미가 있다. 이미 지난 여름에 수강한 참가자를 모두가 한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그동안 이러한 강습회가 너무나 절실했었고, 따라서 매우 시의적절했다. 금번 강습회도 좋았다. ‘심야 강습회’로 특화되어 진행된 금번 기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올바른 발전법에 관해 강의 들으면서 전문성인들로부터 일일이 개인지도를 받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쳤다. 지난 3일에서 6일까지 3박 4일 동안 교회 구석구석, 이 방 저 방에서는 이 은총으로 가득한 다들여지려는 ‘정성의 소리’와 아름다운 찬송소리들이 울려 퍼졌다(관련기사 6면).

긴 준비·나홀간의 정성·가득한 은총



우리는 방글라데시로 갑니다

2월 9일부터 19일까지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단(단장 정홍식 장로, 지도 박정현 목사)이 2월 9일 출발한다.

총 12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이 팀은 지난 여름사역을 통해서 전했던 복음의

결실들을 확인하고 재정비할 뿐만 아니라, 캠퍼스 사역을 계속하면서 전도 사역을 한 후, 19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절실하다.

두 주 앞으로 다가온

제1회 목회자 단기세미나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로 뒷받침 되어야

제1회 목회자 단기세미나가 이제 두 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교육훈련원은 여러 관련부서들과 협력하여 기획, 홍보, 행정, 의전 등 세분된 분과로 나누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 이미 수회에 걸쳐 전국적인 규모의 홍보가 이루어졌고, 모일 때마다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반복하는 일을 거쳐왔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일 것이다.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다.

특히, 금번 세미나는 교회 성장이 더디어지면서 등장한 ‘프로그램 중심

의 목회’로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복음의 회복’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호소하려는 뜻을 강하게 갖고 있다. 그리고 2천년대를 맞이하면서 여러 면에서 등장하고 있는 위기의식 속에 우리들을 지켜 주고 일조 유일한 힘 역시 ‘복음과 진정한 리더십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충현의 온 성도들은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금번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시는 뜻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 각처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열심 기도에야 하겠다.

2월의 주요 행사

우리 모두가 함께할 하락신일 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중요한 행사들이 계속됩니다. 이 모든 행사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는 순종과 믿음의 역사로 채워지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3-6일 전국찬양대지도자강습회
9-19일 방글라데시 단기선교 정기당회
10일 제1회 목회자단기세미나
22-24일 학습·세례식
28일 성경연구원 개강

* 각 부서 겨울순회
2월 기도원 담당 정해성 목사

99년도 첫 학습·세례 교육 문답 학습·세례는 2월 28일 찬양예배시

올해 첫 학습·세례 교육 및 문답이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해당되는 성도들은 일정에 맞추어 교육 및 문답을 받고 2월 28일에 거행할 학습·세례식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한편, 중고등부 학생들은 시간관계상 교육 및 문답을 자체로 실시하고 학습·세례에는 성인들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14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김인식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단? (김병대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정경민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정경민 목사)	교육관 307호		
	1교시 15:00-15:50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단?	교육관 310호
2월 21일 (주일)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지번 찬양예배, 본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감리리움)		



김창인 목사

구원받은 히스기야 왕

(이사야 37:1-38)

“오늘날 우리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1.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앗수르의 랍사게를 만나 모욕적인 협박을 당하고 돌아온 신하들의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입고 있던 찬란한 옷을 벗어 버리고 베옷으로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1절).

왕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첫째로 “나는 왕의 자식이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면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 실력이 없으니 왕의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은 둘째 의미는 탄식입니다. “이 사람들아, 어떻게 하면 종자나”가 막힌 탄식입니다. 또한 왕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고난한 마음을 내어 버리고 겸손해진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뉘속 없이 우리는 망하나이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옷을 벗어 버리고 겸손한 자리에서 깊이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가 선지자에게 보내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2절). 왕의 신하가 이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전한 왕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을 갈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요 그가 주 앙수의 왕의 보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행방하였으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후시 그 말에 전책할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이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3-4절)

랍사게는 히스기야를 놀라게 하여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였습다. 랍사게가 하나님께 비방할수록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가해진 치욕에 대하여 그의 뜻을 맺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요청에 대해 이사가 선지자는 위도와 확신의 말씀으로 사귀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할라 보라 내가 신을 그 속의 두어니 그

가 풍성(風聲)을 듣고 그 고대로 돌아갈 것이요 또 내가 그를 그 고대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겠노라”(6-7절)

신하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랍사게가 공갈을 치다가 앗수르살렘을 떠나서 자기네 왕이 있는 데로 돌아갔습다(8절).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젠 살았나 보다 했더니 랍사게 장군이 돌아와서 자기네 왕을 만나보고는 다시 앗수르살렘으로 쳐들어 와서 협박을 합니다(9-13절).

보통 사람 같으면 “선지자가 원수들이 돌아간다고 하여 그대로 돌아갈 때에 정말 돌아갈 줄 알았나 보다 다시 우리를 치러 왔으니 예라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여도 소용이 없다” 이리가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다시 베옷을 입고 원수가 보낸 첩보 편지를 하나님께의 제단 앞에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14-20절). “하나님, 원수의 편지가 하나님께 도착하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앗수르 왕이 여러 나라와 그들의 신들을 붙여 내렸지만 그것들은 참신아니하고 나무나 돌을 가지고 손으로 만든 것이니 그렇게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신이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신하들을 다시 이사에게 보내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사가 선지자가 기도하고 또 다시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오지 못하며 흥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지 길 곧 그 길로 돌아오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의 여호와와 같이 내가 내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신나이다”(33-35절) “감사하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가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이 이뤄지기까지 기도하자”라며 히스기야 왕은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그 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들을 보내시어 그 교만한 앗수르의 랍사게가 거느린 군사 18만 5천 명을 썩소로 죽여 버렸습니다(36-37절).

“여호와와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 중에서 18만 5천 인을 썩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이나 본즉 시체뿐이라”(36절) 앗수르의 왕 산해람은 자기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황혼 한 번도 소리지 못하고 모두 멸망을 당하니 너무 기가 막히고 부끄러워서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느로 돌아오니 자기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 귀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에 그의 두 아들이 귀신

당에 들어가서 행패부리는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아라뎬 땅으로 도망쳤습다(37-38절). 이리하여 원수는 깨끗이 정리되고 히스기야 왕은 구원을 받았습다.

2. 악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째로, 악한 자의 실력이 굉장해도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구더기와 같습니다. 앗수르의 산해람 왕과 랍사게 장군이 굉장해 보였습다. 그러나 사람과 비교할 때에 굉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더러운 구더기와 같습니다.

둘째로, 악한 자의 특성은 교만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세가 높다고 어깨를 으쓱 올리면서 교만하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교만하여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악한 자가 되가는 증거입니다.

셋째로, 악한 자의 계획은 아무런 치밀하고 물결 뜬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앗수르의 왕 산해람이 랍사게를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 올 때에 예루살렘을 깰부터 막은 것을 보면 그 계획이 참으로 치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번 ‘후’하고 부신면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안개입니다.

넷째로, 악한 자는 과장되게 선전을 합니다. 작은 것을 큰 것처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악한 것도 선한 것처럼 선전을 잘합니다.

다섯째로, 악한 자가 권세를 휘두르는 기쁨은 짧습니다. 하늘을 찔러 별을 떨어뜨릴 것 같고 바닷물을 불어서 후대 멸망 것같이 그 세력은 잠시 후에 꺼져 버립니다.

여섯째로, 악한 자는 열심치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열심치 장군이 앗수르살렘에서 돌아와서 아주 좋아하였으면 살았겠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앗수르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불구덩이로 넘어가는 부나비와 꼭 같은 것이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 군대를 처치하셨는데 그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치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무엇이나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정벌할 때에 그 나라에도 타인이 있었어. 그러나 그 까진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문제가 없다”

이리고 야단을 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심판의 칼을 뽑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나타나십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히스기야 왕과 앗수르살렘 시민이 죽게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칼을 뽑으십니다.

셋째로, 악한 자가 심판받는 날이 바로 의인이 상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시던 “산아, 언더아, 나를 가리리라”하며 악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영생을 받으며 올라가게 됩니다.

넷째로, 악한 자는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절개를 지키면서 복음을 마음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자기네 왕을 반역하고 앗수르와 내통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가 죽는 것은 물론이고 민족 전체도 참으로 비참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와 백성은 죽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데도 불구하고 돌돌 멈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섯째로, 의인은 육신은 죽어도 마음이 죽으면 안됩니다. 우리에게 육신이 죽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죽는 날은 없어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 목이 끊어지는 날이 와도 기도의 불꽃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간구하면서 죽으면 신성 신앙의 강계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히스기야처럼 육신은 죽어도 신앙의 길에는 저를 죽이는 자가 되게 할라고 기도하면서 의인의 발걸음을 걸어야 하였습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범사가 잘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이 잘될 때에 원수가 눈을 흘기고, 회회가 부흥할 때에 원수가 틈을 타서 들어오고, 나라가 바로 되려고 할 때에 원수가 이를 겁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앗수르 군이 쳐 내려온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면 안심이 될지 말고, 나라가 점점 발전한다고 지나치게 안심하지 말고, 나아질 때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악한 자처럼 교만하거나 거만하고 선전하는 자는 끝에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때가 악할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동동이가 떨어질 때에 매를 맞는 자가 되지 말고 상을 받는 자가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목사

롯의 처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32)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측 못할 재림의 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신 후, 제자들을 향해서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하고” (22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을 본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여기 저기 찾아다니도록 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칠 갑이” (24절)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날과 시를 알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상에 묻히는 죄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의 상황과 관련하여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지회를 다 멸하였도다” (26-27절). 사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경고하신 홍수 심판에 대비하지 않은 채, 먹고 마시는 일을 그들 생활의 전부로 삼았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 것, 자신들의 일상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노아를 통해서 전해진 참된 진리를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이러한 ‘단일업’이 노아홍수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무지와 안일한 마음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일들 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멸망에 이르기에 너무나 충분한 자신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의 초점은 어디에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와 롯의 때에 일어났던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의 재림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안일한 반복적인 경계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이르렀을 때에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일들과 가정을 돌보며 살아가는 자들, 땅의 보물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 그러나 전정으로 이 경계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준비된 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영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날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롯의 처보다는 훨씬 더 고무적인 신앙의 선배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무엘의 모친 한나, 혹은 롯,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를 대다수가 롯

으로 보아 이미 결혼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롯의 아내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안에 오랫동안 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많은 제단들도 보아 왔을 것입니다. 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아브라함의 관대함과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힘입어 천사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영적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믿음의 남편과 평생을 지냈습니다. 롯의 믿음은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든 아름다운 권익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더불어 고향의 도성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았고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믿음을 지켜 의로운 사람이라

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3년간을 지냈으니, 그 세월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돌아보지 말라

롯의 처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앞에 있는 일 대신 뒤에 있는 것을 곧 도시생활과 집과 자기 소유물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서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다시 쳐다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여 애착을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습니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사의 경고도 믿지 못하고 불손했습니다. 그녀를 뒤돌아보게 했던 그 것이 그녀가 뒤를 막은 무서운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한 결단

바울은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 3:13)고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눅 9:62)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단 1초도 여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 영원한 멸망과 생명의 갈림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서 중요한 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재림신앙의 핵심

롯의 처를 생각하십시오. 뒤를 돌아본 그녀의 순간적 태도는 그녀의 심령에 가득했던 세상의 미련의 죄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봅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소돔에 살고 있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집이나 지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그늘이 소돔과 미라가 되고 재물이 뜨거운 불에 불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니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려지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도” (벧후 3:10-11). 그 날에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참으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충심으로, 성실하고 순전하게, 또한 겸손하게 인자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까? 아멘. ■

롯의 처를 생각하십시오. 뒤를 돌아본 그녀의 순간적 태도는 그녀의

심령에 가득했던 세상의 미련의 죄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봅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소돔에 살고 있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재림의 그 날에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못 박히심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충심으로, 성실하고 순전하게,

또한 겸손하게 인자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의 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 노아나 롯의 때에 순종치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무서운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은 두려움에 떨립니다. 그런데 그 가공할 심령의 현상대로 롯의 처가 되고, 그리고 역시 그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적의 신앙 환경이었지만

먼저, 그녀의 신앙생활을 생각해봅시다. 일단 그녀의 신앙생활의 여건은 남편인 롯에 의해서 상당부분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좋은 신앙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오랜 시간동안 아브라함의 수하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롯의 처가 따랐을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에 독립적인 양로 소와 장막을 가지고 있었

일컬어지기에 때문입니다(벧전 2:7-8).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간파하여 구하시고 롯과 그 가족을 시험에서 구하시고 동시에 박해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조그마한 것을 생각하여 의인을 소돔성과 함께 멸망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역시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양식이었습니다.

신앙적 환경이 능사가 아닌

핵심은 이것입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기도와 예배를 경험했지만, 문제는 그녀가 신앙의 형식적인 면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가고 기도와봉송을 돕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따라서는 설교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등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를 자체는 우리의 구원을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죄적의 신앙적 환경은 가졌던 엘리야의 산개시 역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과 생활하면서 여러 이적들을 체험했지만 이것이 그를 구원한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유다도 마찬가지였

한국에 계신 믿음의 동지들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도 단기선교팀일 중 한 사람입니다.
벌써 저해를 위해서, 인도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이 듭니다(물
론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여기는 아시아나 347 비행기 안입니다(그에서는 편지 쓰기
도, 부치기도 힘들 것 같아서요). 벌써부터 마음의 무장을 한 저희
를 공략하려는 지 이슬한 목사님께서 어지럽고 체한 중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달려들어 기도하고 손 잡고 등 두드리고 인내해드리고 해서
지금은 회복하신 모습으로 어느 시크교도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주 골수본과 교
도인 듯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말로써는 절대 뒤지지 않는, 참으로 그릇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
는 안락가를 모십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사인하고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중입니다.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참으로 큼을 압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성경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
록,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발을 디딜 인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타나도록, 이미
순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있게 바로 전하도록 다시 한번 온 교인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유체적으로 약한 줄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속히 건강을 되찾아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바로 감당하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땅을 향하고 있지만, 정말 든든한 마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가 계
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솜씨까지 지금도 깨닫기 때문이지요, 끝까지 승
리하도록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우리는 동역자이니까요).
충현의 형제 자매들, 목사님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웃사랑 상식

‘정신지체’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신지체란 18세 이전에 발생하고, 지능
이 평균 이하(대략 IQ 75-70 또는 그
이하)이며 동시에 적응 행동상의 결함을 나
타내는 것을 말한다. 즉 단순히 지능이 낮은
것만 아니라 동시에 연령에 맞는 적응 행동
(의사 소통, 가정 생활, 자신의 욕구 행하기,
사회적 규범 지키기, 신변 처리, 대중 교통
및 공공 시설 이용 등)에 문제를 보일 때
를 정신지체라 말한다.

* 특성

정신지체 아동들은 기억력이나 주의
집중력,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일상 생
활에 응용하여 적용하는 능력 등 발달
의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일반 아
동에 비해 지체되어 있다. 시지각도 정
상 속도로 발달하지 못하는데, 이는 몸
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절하여 움직이지
나 혹은 도형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
기 등과 같은 눈-손 협응 능력이 떨어
지기 때문이다. 언어 또한 아주 느린 속
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의사 소통 능력
이 떨어진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며 융통성 부족 등 사회·정서적
행동 역시 발달이 매우 늦다.

보다 심한 정신지체 아동의 특성은
아주 분명하며, 초기에 발견되는 경향
이 높다(예: 다문중후군의 경우에는 출

생시에 발견). 그러나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아동의
증상은 분명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일
반적으로 더 늦게 발견되기도 한다. 또
한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보다 심한 정
신지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예: 뇌염
뒤에 발생하는 정신지체 등).

* 교육과 치료

정신지체 아동의 경우 조기 특수 교
육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의 경우, 각 아동의 발
달 수준에 따라 지적·언어적·운동
적·정서적·사회적 요소 등이 통합된
조기 특수 교육이 일상 생활 적응 훈련
과 함께 이루어진다(한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 훈련복지관에서는

약 60여명의 발달 장애 아동들(정신
지체, 자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조
기 특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0여
명에 이르는 성인 정신지체인들에게는
직업 훈련 등 다양한 교육 및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이 가정,
학교 등 일반 사회에 적응하여 잘 생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방글라데시에 하나님의 공활이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 기대를 안고 준비
해오던 방글라데시 단기선교가 오는 2월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박경한 목사님과 정홍식 장
로님, 그리고 정희용 집사님을 비롯 대학부 9명의 형
제 자매들이 방글라데시를 품고 그곳의 영혼들을 바
라보며 소망하는 가운데 단기 선교를 가게 된다. 방
글라데시는 흔히 교통혼잡,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가난한 나라이다.

우리팀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계획을 세우며 빨강
이 공부와 찬양, 기도회, 말씀 묵상 등으로 단기선교
를 구체화해갔다. 2월 9일이 다가오면서 우리 팀은
설례이고 들며 잊힐만한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무겁
다. 하지만 거짓의 우상 앞까지 퍼져 있는 그곳에 대
해 온전히 그곳이 주님의 나라임을 신포하며 상처로
열육된 1억2천만의 주님을 모르는 방글라데시인들
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려 한다. 분명 준
비되어 있지 않은 여러 부분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오 우리의 어려움들을 지체롭
게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사역하는 작은 모퉁이 작은 불꽃이 되어 조
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글라
데시에 대한 공활을 기도하며 소망한다.

방글라데시에 대해 주님께서 알려하시고 준비하
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구
주로 고백하는 모습들을 기대해 본다.

우리 이웃 돌아보기

교회를 사랑하고 지역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 교회
5대 목
표 가운데
하나가 '이
웃 사랑'
이다. 어떻
게 이웃을 사랑
해야 할까?

먼저, 우리 교회

주변에는 어떤 이웃들이
있을까? 교회 주변의 이웃들을 찾아 보

며! 추라기들이 있는 지하 주차장 있
는 쪽 뒤편으로 나가면 새로 생긴 놀이
터가 있고 그 옆으로 국민세탁소가 있
다. 이곳은 우리 교회로 어린 아이들이 욕
상에서 장난으로 던진 돌로 창문이 깨
지곤 했었다.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생각
들이 있으면 어찌지 하는 마음으로 세
탁소 문을 들어갔다. 깨끗하게 빨아 세
상적 다림질 된 옷들이 주인을 기다리
며 하나 가득 매달려 있었다. 기계의 주
인되는 오한균(30세) 씨는 6개월 전에
이 곳으로 이사를 와서 새롭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으로 이사를 와
서 충현교회에 등록하여 현재 출석하고
있다고 하시며 어색한(?) 웃음을 보였
다. 교회가 이웃이라는 것이 위식신(?)
보다는 그다지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한
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뒤로 미룬 채 가
게를 나오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그속한 충현베이커리로 발
걸음을 옮겼다. 이곳에는 정남규(49세)
집사님과 김승희(43세) 집사님 부부가
운영한다. 벌써 9년이나 이 자리를 지
키고 있다. 정 집사님께서는 주방에서
찬양 찬가를 굾고 있었고 바쁜 틈을 내어
여러 말씀을 하셨다. "교회가 이웃에 있

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로 인해 이
지역이 깨끗하고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강남의 다른 지역이 퇴폐업소와 가
득 차 있는데, 이곳은 교회로 인해 조용
하고 아이를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미
치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 가까이에
있어 마음으로도 편안함까지 있구요.
저는 1교구 구역의 주변이라 다 말할
지 하는 마음으로 전도가 조금 미약하
지 않나 싶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전도
하며 교회에 더 봉사하고 싶은 마음입
니다. 회에는 1교구 남전도회에만 참석
하고 있는데 1교구 미팅도 하면서도 특
별히 봉사를 못해 늘 죄스럽고 주님께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김 집사님께서는 "행 만드는 데는 정
성이 최고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믿
을 인하여 최선을 다해 땅을 만들고 파
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께서 함께하기를 느끼며 산답니다."라
며 활짝 웃으셨다. 교회의 성도로서,
지역주민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
의 일을 통해 지역을 섬기고 있는 모습
이 가득 쌓인 땀방울이나 풍성하게 나
졌었다. 억지로 땅을 만든 파배기를 손
에 돌려 주시는 사랑이 마음을 따뜻하
게 했다. (이수경 기자)





사랑

이제는 귀에 익다 못해 실증나기까지 하는 IMF,
또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Y2K의 두려움, 막막한 미래, 쫓기는 현실...
하지만 힘든 미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가족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더더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근주(청년2부)

언제나 푸른 바다
가 보이고 바람
을 따라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부산에서
1960년 3월에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25
살이 되는 해에 결혼한
오빠를 따라 서울에 와서
오빠네 가족들과 함께 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
리 집안은 모두 유교에 가까
운 무교(?)였고 우리 어머니만이
무순에 가까운 불교를 믿고 있었습
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으레히 그런가 보다 하고 무
심하게 흘러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가족간의 갈등과 신경전으로 내 몸
과 마음은 알 수 없는 갈등함과 피폐함으로 채워져
갔고 저절로 종교에 대해, 특히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때는 그것이 나의 돌파구였고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성당과 교회로 변장을 바꾸어 갔었지만 처음
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워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와 언니도 언젠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러던 중 나는 때를 같이하며 날마다 피를 도하는 페병
이 걸리게 되었고 나는 그 병에서 놓여나기 위해서 하
나님의 약속 아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 주시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고 교회
에 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
마 지나지 않아 그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고 나는 하
나님의 약속대로 믿을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러나 가족과의 종교적 갈등과 핍박이 시작되었고 나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켜 나가기 시작하였습
니다. 믿음이 깊어 갈수록 갈등도 심해졌지만 지금 생
각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생각
이 듭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시
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지난 날들을 나에게서는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한 하
나님의 만능은 그 무엇보다 비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도
우리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가장 큰 기쁨으로 해
결해 주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오빠네 가족들이 모
두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가장

히루를 마친 어느 저녁이었던 것 같다. 저녁을
먹고 오빠랑 통화를 하다가 "기억나? 어렸을
때 엄마가 마당에 물 뿌리라고 하던 수영복 입고 호스 들
고 물장난 했던 거. 청포도도 따먹고, 무화과나무도 있
었던 우리집 마당은 그때 무척 넓었던 것 같아. 오빠
랑 싸우다가 아까한테 발받을 때 네 명 모두
뒹굴었다 손등고 잊기도 했고... 기분이
이상해. 우린 이제 다같이 모여 사는 일
은 별로 없었지. 그때는 윗집이었는데 합
계했던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
아."

그때다. 가끔 아홉살은 허무함이
몰려올 때가 있다. 한 어머니의 태
에서 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안
났던 사람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
며 가르쳐 주셨던 부모님. 한 사람이 잘못
을 했더라도 벌을 모두 함께 받아 터럭
대까지 싸우며 성장했던 형제자매들.
대학에 입학하면 해. 엄마가
이별과 자취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싸 주시며
이제 집을 떠
나

그
러나 지금도
안타까운 일은 우리 어
머니와 언니가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나와
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나름대로 이유

이런 이유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입장이라
더욱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들도 언젠가는 주
님의 품으로 돌아오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
니다. 그리고 저의 첫번째 소원이 가족 구원이므로 제
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지 않고 가장 자연스럽게
게 주님을 영접하기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을
생활을 하기를 요즈음도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
니다. 누구를 맞고도 인망하기 전에 우리 모든 집안 식구
들이 주안에서 감사를 받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 가
신히 성결해지고 더욱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갈 수 있도
록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나답게

노경재(청년1부)

언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게 될거고 집에
있을 시간이 이런 거 없을 거라며 서운해하셨었다.
그러나 그런 정말 이해를 못했었다. 엄마의 말처럼 난
방학에도 아르바이트와 학원을 핑계로, 학교를 졸업하
고는 직장생활로 집에 가기는 더 힘들어졌다. 집안
행사와 명절을 제외하면 가끔의 통화로 서
로의 안부와 주변의 정황들을 알리고 듣
는 정도이다.

눈물이 땀 정도록 흘릴 때가
있다. 그럴 때 가끔 먼저 생각나
는 사람들, 가족은 내게 참으로
큰 위로와 힘으로 다가온다. 새
벽기지에서 기도록 후회하시는
부모님과 각자의 처소에서 서로를
염망하게 정치는 형제자매 현실에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 가족의 의미는 현재의
나를 '나'답게 할 수 있었던 구성요소 중 가
장 큰 영향을 준 사랑의 사람들

힘이 될 때 내 다이를 돌린
다. "엄마! 엄마의 기도가 가
장 큰 힘이 되는거 아
시죠!!!"

환자들과 더불어

장은숙(청년1부)

20년 넘게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던 할머니께
서 7년 전 병원에 입원을 하
셨었다. 할머니의 병실에는
평소 다니시던 시골 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
어졌다. 그들은 병실에 찾아
와 찬송과 기도로 할머니를
위로해 주었다. 당시 예수님
을 믿지 않았던 나에게 그 모
습은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분들의 발걸음이 너무
도 귀하고 감사했기 때문이라.

그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
한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역을 하고 싶
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주님의 인
도로 병원전도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내
자신조와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전도의 근본
적인 본질조차 알지 못하고 시작한 전도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역을 통해 내게 구원의 확신과 복
음의 참뜻을 조금씩 깨우쳐 주셨다. 병원전도가 아니었
다면 어떤 영혼들을 향한 관심과 애뜻함, 그리고 구원
의 자신조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리라. 지금
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픈이들의 만능 가운데 날 깨
우쳐 주시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환자들을 섬기고 싶다

토요일 오후 남들이 흔히 말하는 황금 같은 시간에
병원전도를 하기란 솔직히 늘 쉬운 것만은 아니다. 작
년 여름 주님께 순아지던 뱃속에라도 병원전도팀원 모
두 빠짐없이 병원 로비에 모여 서로 "어떻게 왔어요?"
하고 격려하며 사역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또 내가 움
작이지도 못할 만큼 너무 아파 혼자 자취방에서 눈물
도 아픔과 외로움, 서글픔을 달고 있을 때 날 찾아와
함께 아파하며 울면서 기도해 주었던 지체들의 모습은
지금도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일주일간 우리를 에게가 기다리다 활짝 웃으며 우리
를 만기는 환자분들. 헤어지는 게 마냥 아쉬워 아픈 몸
을 이끌고 배웅나와 주시는 그분들의 기다림과 사랑, 따
뜻한 마음이 매우 토요일 오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
했다. 때때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많은 기도없이 무겁
게 병원으로 발걸음 옮기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웃으며
만기는 환자분들의 모습이 늘 내 마음에 개뿔과 환희의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다. 그런 그분들을 사랑하며 앞으
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그 사랑을 품고 섬기고 싶다.

제2회 전국전양대지도자강습회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최고의 찬양을

크중한 헌신된 일꾼들과 여러 돕는 손길들에 의해 준비되었던 제2회 전국전양대지도자강습회가 드디어 지난 2월 3일 개강되었다. 2월 6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강습회는 보다 특화된 성격으로 진행되는 '성악강습회'로서 서울지역을 포함하여 제주,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110여명의 교회찬양대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본교회 지휘자, 반주자, 솔로리스트들의 전문적인 강의와 헌신적인 봉사, 도우미들의 수고, 여러 사무공 직원들의 섬김 및 시간외간 계속되는 성도들의 기도가 연합되어 진행된 이번 강습회 역시 지난 여름의 1회 강습회 만큼이나 성공적이었다. 비록 지난 여름보다는 다소 적은 인원이 수강하였지만, 지금이 시기적으로 개학기간이고, 또한 연초에 3박 4일의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인원이 수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습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전체강의

참가자 전원이 함께 강의를 듣는 전체강의는 복식호흡과 발성 및 실습(강입구), 성악문헌(강입구), 찬송가 학(김철문), 발성과 합창실습(강입구), 교회음악사(조신옥)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강사들의 헌신적인 강의뿐 아니라, 겸손한 태도에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도우미들

10여명의 자원봉사자들, 이들의 남모르는 수고로 행사는 더욱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1월초부터 시작된 등록작 접수에서부터 각 강의실에 필요한 물품준비, 간식, 진행통기, 반주로 섬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의 수고로 모든 행사가 더욱 소중해졌다. 도우미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지난 1회 때에도 도우미로 봉사했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하고 있고요. 봉사도 기쁘고 강습하는 것도 좋아요"(오지명). "열렬결에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봉사하게 된 것이 감사하구요.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이은경). "저도 지난 1회 때 봉사했는데, 참 좋았구요. 무엇보다도 교회일을 함께하는 젊은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것이 기뻐요"(안설희). "규모가 큰 교회의 지체로서 보다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한다는 것이 참 기뻐요. 그리고 틈틈히 배우면서 봉사하는 특권 때문에 감사하구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계속 봉사하고 싶어요"(이대옥).



△ 사진 왼쪽부터 이은경, 안설희, 오지명

분반강의



좀더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초급 중급 고급 등 세 반으로 분반하여 강의한 일꾼공부 시간에는 음악통론(노용진), 사창(김윤경), 화성학(고병석), 악식론(이진우) 등이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각각 자신에게 해당하는 수준 및 자신이 원하는 과목에서 진지하게 수강하면서 막연하게 불러왔던 찬양을 이제는

실기분반

둘째날과 셋째날 오후에는 약 세시간 씩에 걸쳐 실기 분반시간이 있었다. 총 다섯 개의 반으로 나누어 발성 연습을 하고, 풍부한 이론을 바탕으로 강사가 일일이 개인수업을 하는 시간이었다. 강사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수강생들을 한 명씩 테스트하고 발성을 교정하고 소리내는 법 등을 상세히 알려 주는 등 집중적인 개인 지도를 실시하였다.



중창경연대회 등

참가자 전원은 팀을 구성, 휴식 시간 등을 이용하여 중창연습을 하였고, 금요일 오후에 중창경연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금요일에 참석하여 은혜를 나누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지난 해 우리 교회 연합찬양대에서 준비하여 부른 '98 메시아 합창을 비디오표로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모든 실제적인 교육과 실습들은 참가자들에게 그야말로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모두가 익히 공감하고 있는 것은 찬양은 '멜로디에 실린 가사'가 아니고,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고백'이라는 지평한 사실이고, 이에 따라 둘째날 저녁에는 부흥회를 마지막 날 오전에는 말씀 집회를 통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소감



인용훈
(서울남문교회 찬양대원)

"저는 성악전공자가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서 솔로리스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신문 광고를 통해 저희 지휘자 강도사님의 권면으로 휴가를 내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악전공자가 아니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느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저 같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주 1회씩 여러 주에 걸쳐서 강의를 실시하는 그런 과정도 신설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황재경
(강도사, 서울남문교회 찬양대 지휘자)

"저는 지난 1회 때에도 참가했었습니다. 그때에도 참 좋았는데, 이번엔 참가해 보니 그 때보다 훨씬 체계가 잘 잡혀진 것 같습니다. 특히 '성악강습회'로 특화시켜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 강습회는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와 찬양대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강습회인 것 같습니다. 좀 욕심을 낸다면, 강습회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연계를 갖추어서 여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커리큘럼을 체계화시켜서 몇 회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는 일정한 자격과 수료증을 주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준섭
(부산 예동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타교회 지휘자 김사님의 강연을 받고 참석했습니다. 그 김사님 친구분이 충현교회에 다니시는 데, 아마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저의 형이 집에 왔었는데도 뿌리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 면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강의해주시는 강사님들이 실력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너무 겸손해서 참 은혜받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의 큰 교회들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까운 곳에서도 이런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교 동 농어촌전도부 다문화서

크고 위대한하신 하나님 실감!

박귀숙 집사 (성경학교 유년부팀)

결혼 후 11년 동안 집을 떠난 적이 없었지만, 남편의 격려를 힘입어 참여한 거제도에서의 겨울성경학교.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온 성지방의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감격 속에서 기도하며 마음을 가르쳤다. 크게 잡아 25명 정도의 어린이가 올 것이라 고 예상했던 우리들의 생각은 너무 작은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사랑에 감동한 어린이들을 60여 명이나 보내 주셨던 것이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의 등장에도 전혀 당황치 않고 감사와 넉넉한 믿음으로 섬겨 주신 봉사부 집사님들로 인해 저의 믿음도 덩달아 자란 것 같다. 크고 위대한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전도여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 같은 기적

김한숙 집사(봉사팀장)

18명의 전도대원과 60여 학생들의 간식, 점심식사, 저녁사회에 오는 성도들을 위한 간식 등 약 90여명을 위한 음식들을 준비하며 보내 거제도에서의 3월 4일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드렸다. 준비해간 양보 다 훨씬 많은 이들을 대접했어야 했으나, 놀랍게도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다. 봉사대원 네 명은 확실히 복귀를 이루며, 개인과 집단의 모든 열매를 다 잊고서 평강과 기쁨,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을 보냈다.

작은 나뭇 큰 은총
거제도 영광교회 위해
드리워진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친 성경학교

이애나 집사(성경학교 교육팀장)

주로 음식점과 민박으로 생계를 이으며, 불교, 천리교, 도속종교에 익숙해 있는 80세대 300명 주민. 둘째날 새벽예배 후, 우리는 집들을 일일이 방문하며 어린이들을 겨울성경학교에 초청했다. 예상했던 숫자보다 두 배도 더 넘는 아이들이 참석하는 감격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1인 23역을 감당하며 성경학교를 치러 갈 수 있었다. 특히 우리들이 준비하여 공연(?)한 성극 '오병이어'의 인기가 많은데 대단했다. 교인 한 명을 등록시키는 데에 4년이 걸린 이 지역에도 맑은 눈과 순진한 정이 깊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단아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하루 23시간을 참으로 때우며 치른 거제도에서의 겨울성경학교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풍성한 말씀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 소중한 시간이었다.



한 명을 위한 기도에
세 명을 보내신 하나님

박현순 집사(성경학교 중·고등부팀)

신앙생활 20년만에 처음 다녀온 농어촌 전도였다. 두리우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품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육지의 끝 끝끝리에 도착했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중·고등부학생 중 꼭 한 명의 결신자를 얻으리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으면서 저녁과 밤,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시간이 지나면서 축조전도를 통해 만난 동영이를 포함해 정화, 대현이 등 3명의 새 친구가 더 축복하게 되었다. 한 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명을 보내 주셨던 것이다. 풍성한 은혜가 쏟아지고, 영적 회복과 구원의 감격이 넘친 크리스찬의 시간이었다.



41명에 전파, 16명이 결신

이강철 집사(전도팀)

해 질 녘, 거제도 갈곶리에 도착할 때까지의 10여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전도대원들의 신앙간증과 성경연습, 율동성가, 찬양을 통한 교제를 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났던 것이다. 도착해서 보낸 시간은 어른 새벽기도회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이 새벽예배, 하루종일 계속된 침술의료전도, 겨울성경학교, 축조전도, 부흥성경회, 평가회에 이르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계속되는 강행군이었다. 특히 의료전도팀은 침술과 싸움질 등으로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면서 믿음의 봉사하였고, 축조전도팀은 후발목도 도착한 여섯 명의 지원군에 힘입어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복음에 대하여 지극히 완고한 이 성지방 사람들 41명에게 복음을 세심하게 전하였고, 그 중 16명이 결신을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지체들 소식

영아부

매달 새로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

새달인 2월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다 땅과 해, 달, 별 등은 천지 만물을 주심에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심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배운다는 은 우주가 움직이고 있음을 만든다. 하나님은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2월달을 준비한다. (송해경 통신문)

유치부

"사랑이 뭐라고 사나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대답하며 말씀을 듣는 유치부 어린이들의 눈이 성경말씀이 주신 지혜로 빛났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사랑하는 주의 어린이로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유치부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혼계를 따라와,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어 주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저희 유치부 교사들 모두가 기도합니다. 2월 25

일, 26일에는 겨울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조인혜 통신문)

초등부

바도 어린이들과 함께 나는 온전 잔치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울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특별히 고등부 농어촌전도사역 교회인 아구교회에서 김필주 강도사님 인솔하에 초등학생 19명이 함께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들이었는데 모두 우리 초등부에 사 함께 성경학교를 하며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미숙 통신문)

중등부

감사와 기쁨이 함께한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예수와 친권을 알고 목장생활 우리 친구들이 조별모임을 만들고 신앙으로 신앙 간증으로 또는 뮤지컬 등으로 우리 모습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니다. 또 산악기독교회가 갖는 대 부모님과 단상들을 위해 눈물로 회개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 매순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영희 통신문)

청년2부

첫번째 애잔식 은혜롭게 끝내

청년2부 애잔식이 있었던 지난 1월 31일에는 유년회 많은 회원들이 모여들었다. 집회실 앞에 준비된 음식을 보며 의아해 하는 눈길도 있었지만 곧 즐거운 표정으로 바뀌는 모습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을 본다. 목사님의 설교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채워진 심령들이 또 준비된 여러가지 음식들로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섬기는 모습 속에서 천국을 본다. 회원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많은 섬겨지까지 기쁘게 감당하는 것을 보면 30대 청년들의 가슴속에 불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다. 99년도에는 청년2부 집회실(교육관 514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박 채워질 것 같은 모습을 예감하든다. (백영자 통신문)

사랑부

교사 월례회

지난 주일 교사 월례회가 있었다. 각

과별로 학생 및 교사 축적 현황, 그리고 각처별로 진행경과를 보고했다. 축적현황 보고 때 마음이 아팠다. 99년도에서는 사실상 교사보다 학생들이 더 많았다. 선생님은 한 분에 학생 3~4명이 있었는데 이례는 1인 1명 이하 교사의 수가 더 많다. 교사가 더 많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학생이 그에게 비하면 너무나 많은 수가 줄어 들었다. 그동안 축적한 아이들이 교풍사양으로 인하여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다. 차광문제도 인하여 예수님께로 향한 그들이 마음에 안착된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바라는 교회 차광에서 하루 빨리 차광지원을 해 주었으면 한다. (정예자 통신문)

4교구

씨뿌리는 자가 되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무리들이 열매를 따를 때 홀로 한켠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4교구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을 따라 씨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2월부대 새벽기도회를 참석하기로 하였다. 자라나고자 하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다만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기도하기를 하였습니다. 교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축복을 나누는 모든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 (박종영 통신문)

교회 소식

● 알 림

1. 99년 제1차 학습·세례식 신청 안내/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오늘까지 교구 담당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4부예배 안내위원회 모임 안내/ 우리 교회 서리집사 중 4부예배 안내위원으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및 신청 / 주일·예배위원회실(구내전화 214번)
3. 크로니카를 남나서인대원 모임 / 연습·매주 목요일 10:00~11:00, 메디나홀
문의·김옥순 집사(548-6016)
4. 만민인 신임대원 모임 / 프레스비리안 연주 가능한 성도들 중 함께 봉사할 신임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노순옥 권사(548-6823), 이연순 집사(3463-0434)
5. 춘천복지관 직영집사 / 원세실습처(농장)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농업과 출신으로 농작물 재배 경험함자(경기도 광주 거주자 환영)
문의: 564-4885

● 모 임

1. 정기당회 / 10월(일) 20:10, 당회실
2. 장로 화요새벽기도회 / 9월(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3.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회 / 8월(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4. 주일오후기도회 / 오늘 15:00, 갈릴리움
5. 간혹위원회 모임 / 오늘 15:20, 선교관 505호
6. 감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선교관 404호(감사실)
7. 남녀전도부 각 교구 회합, 부회장 모임 / 오늘 15:00, 칼빈홀
8. 교정전도회 월례회 / 오늘 16:00, 갈릴리움
9. 경찰전도회 임시위원회 / 오늘 15:30, 경찰전도회 사무실
10. 경찰전도회 월례회 / 14일(다을 주일) 15:00, 칼빈홀
11. 도사장학회 실행위원회 모임 / 오늘 찬양예배 후, 교육관 109호
12. 재단법인 춘천동산 이사회 / 오늘 15:00, 사무국

13. 안수집사회 월례회 / 오늘 15:30, 교육관 512호
14. 권사회 제2차 월례회 / 10월(수) 1부예배 후, 사랑부실

● 남녀전도회

1. 한 나 15 / 14일(다을 주일) 15:00, 교구모임장소
2. 메스다 4 / 9월(화) 11:00, 칼빈홀
3. 루디아 5 / 10월(수) 1부예배 후, 새가족부 교사실
4. 루디아 9 / 9월(화) 11:00, 한사랑부백 백합실(951-7400-1)
5. 마리아 1 / 9월(화) 10:30, 영아부실
6. 마리아 4 / 9월(화) 10:30, 우육원 집사대
7. 마리아 5 / 9월(화) 10:30, 교육관 109호
8. 마리아 7 / 9월(화) 10:30, 사랑부실
9. 마리아 10 / 9월(화) 10:30, 이경숙 집사대(2201-5610)
10. 마리아 12 / 9월(화) 10:30, 양경숙 집사대(333-6278)
11. 마리아 13 / 9월(화) 11:00, 박연자 집사대(032-501-8129)

소석장학생 모집

- 장학금 신청 마감 : 2월 14일(다을 주일)
- 신청 및 문의 : 교육국 (교육관 103호, 구내전화 473)

사진 찍으세요

99년도 신임 남녀 서리집사들께서는 제직사진첩에 실릴 사진을 2월 14일(다을 주일)까지 모두 찍으시기 바랍니다.
· 찍는 곳 :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80	송경현	2	루디아		192	정인호	19	대학부		204	정영호	19	청년2부	박경희(19)
181	김민지	5	청년2부		193	성준호	19	대학부		205	김도형	19	청년2부	남혜자(19)
182	정태호	8	바울	전운해(8)	194	김종세	19	대학부	오홍관(6)	206	천상수	19	청년2부	
183	조혜미	8	고등부		195	황인호	19	대학부	오홍관(6)	207	이동영	19	청년1부	김은혜(8)
184	이영진	8	바울		196	민세희	19	대학부		208	김정림	19	청년1부	안소영(9)
185	심금순	10	루디아		197	김지성	5	대학부		209	이지현	19	대학부	
186	이혜린	10	대학부		198	이경희	19	대학부		210	나은영	19	대학부	
187	정수미	192	청년1부		199	구해진	19	대학부		211	홍은숙	192	에마다부	
188	김희미	11	에스디		200	박정명	19	대학부		212	대미혜리	18	영아교육	
189	이성환	13	소망부		201	곽세영	19	청년1부	윤선희(19)	213	최길남	19	청년1부	김춘희(19)
190	김상진	13	한 나		202	김종기	19	청년1부		214	최윤종	6	대학부	
191	구현호	19	중등부	홍정애(19)	203	김효중	19	청년2부						

※춘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남생 처음 경험한 거울성경학교

정원길
(목사, 충북 제천 금성교회)

남생 처음으로 거울성경학교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좋은 일기 가운데 거울성경학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춘천교회 담임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회임원에서 수고하신 춘천교회 17교구 가족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할 따릅니다.
마음으로 큰 은혜를 주신 저비 전도지회를 생감하며 감사드립니다.
영성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며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마음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동년 회에 들어간 영성이 전도하여 많은 분들을 교회로 오게 하신 전도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력이 불편한 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즐거운 얼굴로 봉사해 주신 주방 담당집사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음 어루무시 위해 열정 사전을 찍는 아이들을 내심 장로님과 사전을 촬영해 주신 집사님의 아름다운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IMF 시대에 모든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서 시기와 물질을 투자하지 않은 몸으로 봉사하신 모든 분들과 춘천교회 위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춘천 중보의 창

① 김창진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서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②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교회학교 거울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심령이 세 힘을 얻어 한해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소서.

③ 단기선교를 통해 이방의 땅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④ 2월 22일~24일에 진행될 제1회 목회자단기세미나에 전국의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복음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

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99년도 전반기 춘천 소석장학생들을 선별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천국일꾼을 양성하게 하소서.

⑥ 2월 28일에 있을 학습·세례식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에 참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창진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환 김동성
김필수 권현준 김재철 이숙수 정갑진
정현민 조문환 조철수 김동하 차박준
김경태 김인익 권상현 서광진 이송하
정재성 박노현 이준경

■ 협동목사
윤영택 박학용 노봉린

■ 선교사
이준교 안석필 김영태

■ 감도사
박진기 현영일

■ 원로전도사
이두란 최순복

■ 여전도사
정현희 현광남 정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희혜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송원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윤 한영준
박종하 김영숙 김복순 최영란 김연익

■ 교정전도사
박영덕

■ 교육전도사
한승일 김경기 송원석 김창중 조재민
허용구 이우환 김병수 이종대 김윤식
김진숙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태양

■ 원전도전도사
유병재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허요셉

2월 14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 2부예배
소프라노 최진사
(임미야엘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찬 아름다워라
- ◆ 3부예배
첼로 조준경
(첼로앙주앙케스트라)
(찬양곡목)
· 순종할 때에
·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 ◆ 4부예배
소프라노 김술자
(임미야엘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고통의 땅에 벗으로
· 내 평생에 가는 길
·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 주 오늘 제발하신다
- ◆ 5부예배
소프라노 윤지현, 조수진, 최근희
(첼로앙주앙케스트라)
(찬양곡목)
· 그의 빛 안에 살면 · 세 개의 못
· 내 주를 가까이 · 예수 그 이름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